

Z스포츠 화재



Z스포츠 화재

자리 비운 사이 과열된 건조기에서 발화한 화재

1. 일반사항

- 건물명 : Z스포츠
- 소재지 : 부산직할시 서구 소재
- 화재일시 : 1985년 8월 22일 22시 53분경
- 발화위치 : 건조실내
- 화재원인 : 건조기과열

2. 공장개요

화재공장은 부산시 서구에 소재한 스포츠용품 메이커로서 주용도는 야구장갑, 야구공, 베트 등의 생산이다. 야구글러브 공장건물, 야구공과 베트작업장 및 창고건물, 탈의실, 식당, 사무실건물 등 5개동 연면적이 2,136.0m²이고 그중 야구공을 만드는 건물의 건조실에서 발화 하였는데 이 건물의 면적은 526.5m²이다. 이 건물의 건축일자는 미상이며 기둥은 조적, 보는 목조, 지붕은 목조트러스의 슬레이트, 외벽은 목조위 콘크리트 조적이며 바닥은 콘크리트이다.

3. 화재상황

화재는 1985년 8월 22일 목요일 하오 9시경 야구공 내부에 감는 실을 세탁하여 건조하는 작업공정을 담당한 종업원이 잔업을 하고 있던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건조기가 과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발화한 불은 건조실 지붕틀을 타고 공장내부로 확산되었다.

최초에 이 불을 목격한 사람은 기숙사에 있던 한 종업원이었는데 그 종업원은 건조실 지붕위로 연기와 화염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였다. 추정 발화시간은 22시 53분이었으나 발견은 그 보다 약 2분 후인 22시 55분이었으므로 비교적 빨리 목격하고 신고한 편이다.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종업원들은 우선 방화수와 소화기를 이용 진화에 착수하였으나 건조실에서 발화한 불은 지붕틀에 연결된 공장내부로 연소,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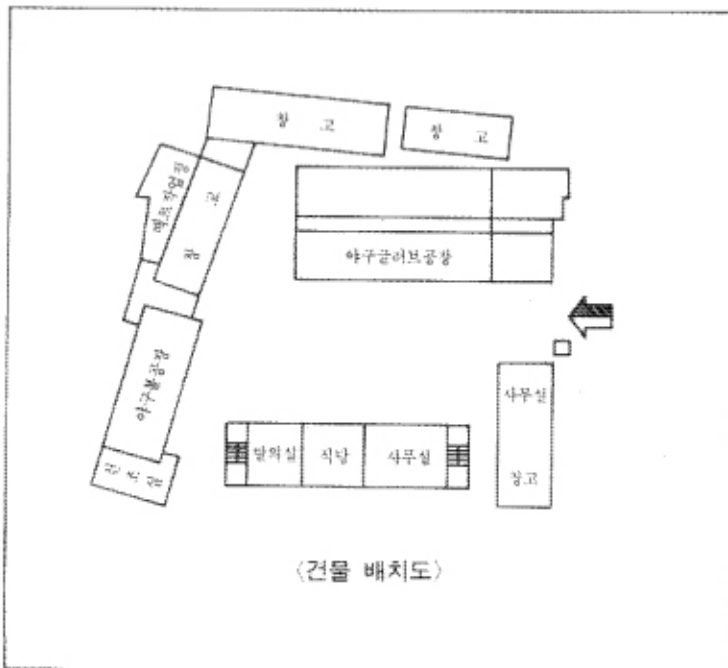
더구나 발화 건물에는 다른 목조건물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체 진화는 그다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가 도착한 것은 불과 5분 내의 일이다. 소방차 3대가 긴급 출동하여 공장 마당에서 직접 주수하였으며 종업원들은 재산 피해의 방지를 위해 연소실에 있던 재품을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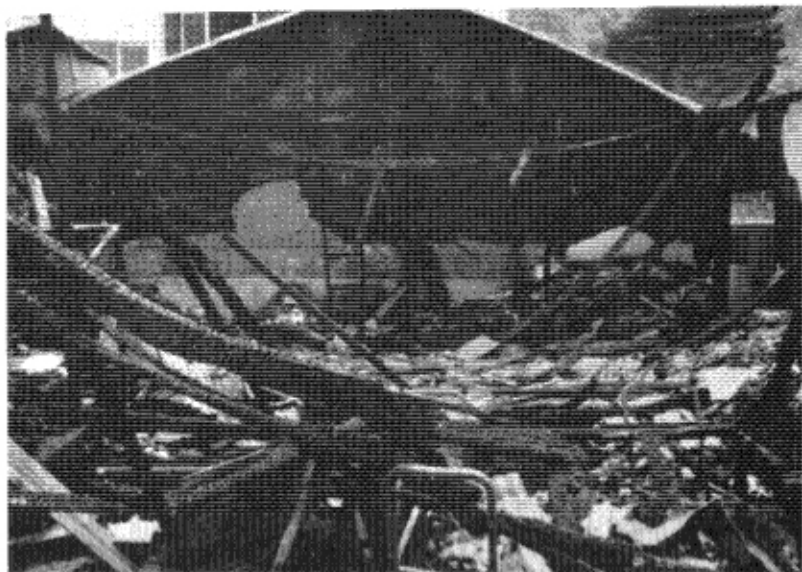
4. 피해상황

발화시 기숙사에는 50여명의 종업원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526.5m²의 건물중 196.0m²가 소실 약 1,700여만원의 재산피해로 그쳤다. 연소동 건너에 민가가 있었지만 1m 정도 이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피해는 없었다. 소방차가 공장 마당에까지 도착하여 단거리에서 주수소화를 실시하였으므로 진화효과가 좋아서 큰 피해로 번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보험금액 2억 1천여 만원의 신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 사고로 1천 7백여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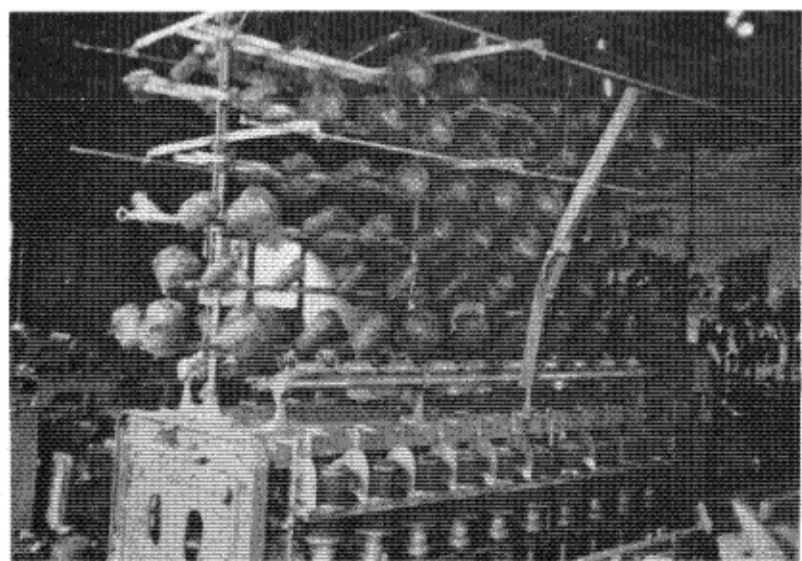
5. 문제점 및 대책

건조기의 발화위험과 작업시 이석에 관련된 주의사항 등의 교육불이행 등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한 종업원의 무관심과 비상경보설비 대응으로 설치한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보완을 점검 후 개선하도록 통보하였으나 미개수하여 화재시 작동치 않았다. 따라서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훈련과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성의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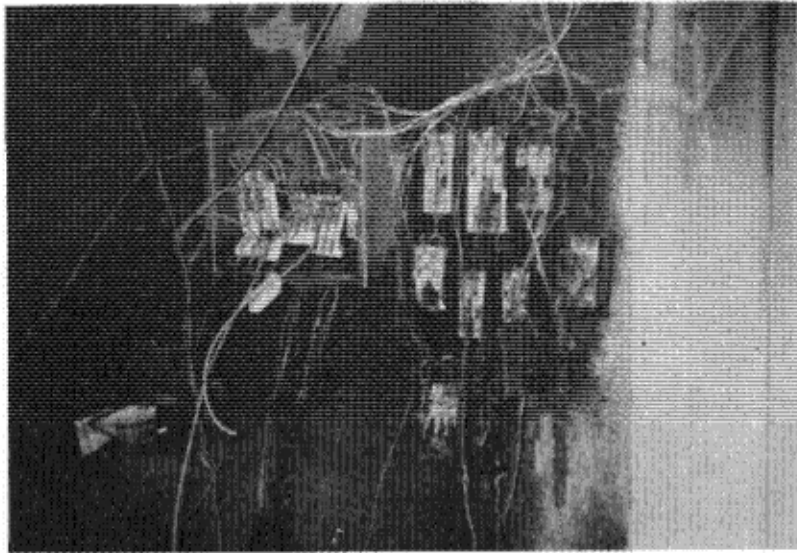




▲ 중앙 상부에 보이는 구멍으로 화염이 건너와 공장등에 연소되어 목조건물 전체가 소실됨



▲ 전소된 공장내부에 있던 기계시설 (야구공에 감는 실)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건조실 벽에 부착되어 있던 전기배선기구의 소실